

2022 공인노무사 합격 수기

합격수기 제목:

지방에서 노단기 프리패스로 1년 2개월 합격!

수험기간:

저는 지방에서 노단기 프리패스 + 온침반으로 1년 2개월(21년 7월말~22년 9월초)동안 전업으로 공부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31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합격이 멀었다고 생각할 만큼 공부가 많이 부족했고, 다른 분들처럼 체계화된 공부방법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없지만... 지방에서 인강만 들으며, 특히 노단기 프리패스만 들으며 합격한 사람은 없을까 궁금해 하며, 노단기 프리패스로 합격한 분의 수기가 좀 더 있었으면 마음이 더 든든했겠다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 이렇게 부족한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수강 강의 및 교수님 후기, 시간 관리 방법 등):

<과목별 수강 후기>

(1) 노동법:

김 영 노무사님 노단기 프리패스를 듣기로 정한 후, 많은 고민 끝에 김 영 노무사님 강의를 듣기로 정했고 0기에서 3기까지 김 영 노무사님 커리큘럼을 따라간 끝에 합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21년 8월 즈음 0기 진입하기 전에 이윤탁 선생님 지난해 0기를 빠르게 돌려 들었었는데,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말투? 동기부여해주는 방식?이 저랑은 잘 안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0기에 김 영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설명해주는 방식이나 강의 진행 방식 등이 듣기에 편하고 통합노동법이라는 책이 워낙 좋은 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노무사님이 가끔 너무 피곤해보이시기도 하고, 마지막 2기, 3기 정도 가니까 텐션이 낮아지시긴 했지만, 매 기마다 열정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그래도 저는 덕분에 판례나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통노를 기본으로 어떻게든 짧게

라도 복습시키려 하시고 중요 판례는 판례 원문을 정리한 것을 나눠주시며 강의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부분을 함께 보는데, 덕분에 판례가 스토리처럼 머리에 기억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케어>라고 강사님께서 수강생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3달에 한 번씩 직접 전화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을 메일로 남기면 보통 답장을 해주시는데, 간혹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계획과 지난 주의 달성여부 등을 체크해서 보내고, 아침마다 공부 시작할때 타임스탬프로 사진찍어서 노무사님께 직접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은근히 내가 강의를 듣는 강사님께 직접 그걸 보낸다는 부담 아닌 부담이 있다보니 하기 싫어도 좀 더 빨리 읽게 되고 쉬고 싶어도 그냥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좀 더 철저히 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타 강사님들 모의고사 공유 같은 것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통합노동법과 편제가 유사한 다른 책들을 참고용으로 구매해서 함께 봤었습니다.

(2) 행정쟁송법 :

정선균 박사님 정선균 박사님의 행정쟁송법은 진짜 설명을 물흐르듯 해주셔서 “와... 저 분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저것이 똑똑함이다....” 라는 기분이 들었고(ㅎㅎ), 그래서 들을 때는 오 재밌다~하다가 다 듣고 복습하면 이게 뭐지?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계속 들으며 이게 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구나 깨닫게 되었고, 덕분에 행정쟁송법이 정말 재밌어졌고, 늘어가는 스스로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가면 긴장하고 그러면 제실력이 안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때 시간 모자라게, 어렵게 풀어야 시험장 가서 긴장해도 잘 볼 수 있으니 지금은 쉽게 널 생각 없다하셨는데, 전 이것도 좋았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

최중락 선생님 워낙 유머러스하시고 인사분야 전공자이시다보니 온갖 이론이 술술나오고 사례도 쉽게 잘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사 공부에 힘들었는데, 그건 중략쌤때문이라 아니라 그냥 인사 과목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들을 땐 재밌고, 책 읽을 때도 다 아는 단어들, 당연한 소리 같은데 책 덮고 답을 쓰려고 하면 진짜 한 문장도 제대로 기억이 안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강생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기에는 조금 어렵다보니 이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4) 민사소송법 :

김광수 변호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민소였는데... 민소도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단문 하나를 아주 망쳐서요. 그래도 민소를 가장 좋아한 이유는 1번 광수 쌤이 넘 재밌어서, 2번 사례문제 푸는게 재밌어서 입니다. 21년 8월경 민법 기본강의를 그냥 돌려 들을 때 시니컬한 말투 속에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 나도 모르게 피식 피식 웃게 되는 유머감, 또 강의력에 매력을 느꼈고 결국 김광수 변호사님의 민소를 듣게 되었네요. 실제로 민소를 들어보니 단문은 외우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고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못 외운 단문이 수도룩 했습니다. 다행히 광수 쌤이 강조하신 판결의 편취가 나와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번 보고 많이 외우고 모의고사로도 쓰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 푸는게 재밌었습니다. 혼자 사례집보며 공부할 때도 목차 잡으며 키워드 써넣고 사례집 내용 다시 보면서 답안을 분석하곤 했는데 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특히 광수 쌤이 강조하시는,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쓰고 사례는 ~~이므로 다음에 00을 설명하겠다. 해서 00에 대해서 또 쓰고, 사례는 ~~하니까 ##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검토하는게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광수 쌤이 강의시간에 여러 번 '광사모'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이게 엄청난 동기유발이 되었습니다. '광사모 베라기수'가 되고 말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하였고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부법> 저는 특별한 공부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년 복습을 제 시간에 다 못 했습니다... 복습할 때도 빠르게 쭉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서 여러번 보라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그냥 문장이 머리에 박힐 때까지 같은 문장을 5번이고 10번이고 읽어야 직성이 풀려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본 후에 잘 몰랐거나 완전 틀린 부분은 모범답안 보면서 혼자 복습시간에 그대로 배껴 써보았습니다. 눈으로 한 문단 외우고 덮어서 백지에 쓰고 기억 안나면 다시 펴서 봤다가 문장 단위로 외우고 바로 안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더욱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나고보니 답답하고 무식한 방식으로 차곡차곡 공부를 쌓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꼭 남들 하는 대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추가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판례집을 보며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또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서를 함께 펴 놓고 답안 구성을 어디에서 얼마나 뽑아서 만들었는지를 거꾸로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보면 내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나, 관련 논점이 나오면 반드시 써야 할 부분 등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후회된 것은 인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두문자를 따놓지 않은 것입니다. 막판에 모의고사를 쓰면서 그 단어들이 아예 떠오르지 않아 답안을 망칠때마다 두문자를 1기 쯤부터 따놓고

공부할 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기 넘어가면서 뒤늦게 따보려 했지만 이미 2, 3기를 거치며 머릿속이 포화상태라 새로운 두문자가 들어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단기사이트, 서비스, 콘텐츠 활용 팁:

노단기 프리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강의를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고, 작년 강의도 필요에 따라 빠르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0기 진입전 애매하게 2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지난 해에 올라왔던 1차 민법 기본강의와 노동법 0기를 빠르게 돌렸고, 따로 복습까진 못했지만 이게 이후 0기 수업을 듣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교수저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부담이 덜 했습니다. 책만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프리패스 수강생들에게 침묵권을 살 수 있게 해준 점이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침묵권을 사서라도 강제로 모의고사를 치고 제출하게 되는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과목 강사님들이 모두 다행히 온침반을 운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2기, 3기 모두 침묵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김 영 노무사님과 김광수 변호사님께서서는 인강생들의 답안지도 스캔본에 직접 침묵을 해주셔서 실강생 못지 않은 케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포기 하지 않으셨으면! >

어차피 생동차로는 되기 힘들다는데 그냥 내년을 기약할까? 너무 힘든데 좀 쉬엄쉬엄할까? 고민이 들 때마다 마음을 잡은 생각은, “나에게 만에 하나 진짜로 합격할 운과 기적이 왔는데 내가 그 운조차 못 붙잡을 실력이라면 얼마나 후회될까. 운의 귀퉁이라도 잡을 수 있게 만들자.”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운의 귀퉁이를 감사하게도 부여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시험 당일 인사랑 민소에서 1문제씩 정말 처참하게 못쓰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문제에서 점수를 메꿀 심산으로 정말 열심히 썼고, 인사를 망쳤다는 생각이 든 후에도 둘째 날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진짜 둘째 날 마지막 교시 종이 올릴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는대로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합격수기, 유명한 강사, 남들의 공부시간과 공부법, 회독 수 등 남들이 하는대로 못했다고, 그리고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저도 엄청 절망하면서 공부했지만 그냥 다른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지만, 남들이 하는대로 다 했느냐가 결과를 결정지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똑같을 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수험기간 내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혼자 되뇌이곤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부디 그렇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